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45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9인	2인

1.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14:00~20:00(회의 소집 통보일 : 2025년 10월 13일)

2.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301호)

3. 임원 출·결 사항

ㅇ 참석 임원
- 이사(9) : 이계안, 김병환, 선권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2) : 정재흠, 안상우

ㅇ 불참 임원
- 이사(0) :
- 감사(0) :

ㅇ 배석 교직원
- 법인(4)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정웅, 과장 임지윤, 담당 이현민
- 학교(5) : 총장 이동현, 교무처장 정선호, 기획경영본부장 장희선, 기획경영부본부장 이석윤, 계장 박종선

4. 안건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 심의
제2호. 기채신청 승인제청 심의
제3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심의
제4호. 규정 제·개정 관련 정관 변경 요청 승인제청 심의
제5호.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 승인제청 심의
제6호. 기타 안건

2)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류원열 교목실장·신학과 교수(이하 '교목실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516장을 다 같이 부르고, 교목실장이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21절을 봉독하고 교목실장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의 주제로 성경 말씀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다.

(교목실장 이석)

예배를 마친 후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개최 정족수를 충족하고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5.08.19.(화)자로 개최된 제244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보고 사항을 낭독하다. 사무국장의 전차 회의록 보고 후, 이사장이 정선호 교무처장·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이하 '교무처장')에게 제244회 이사회 심의사항 중 '제1호. 2025-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필수 이행 사항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분야별 전형 과정에서 평가자 간 점수 편차, 전공 불일치 문제, 산업체 실무경력 기반 교원 선발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제245회 이사회 보고자료' 제2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다. 신규 채용 절차 개선 방안으로 ①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 보완을 위한 최저점 보정 방식, ②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객관성 강화 방안, ③ 정량 점수제의 등급제 전환 검토로, 교무처장이 각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절충안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 예정이라고 하다.

사무국장이 전차 회의록 보고 '제2호. 2025학년도 전반기(2025.03.01.부)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제청'을 보고하고, 교무처장이 필수 이행 사항을 설명하다. 해당 자료는 '제245회 이사회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로, 당시 김우영 이사가 간호학과 교원 재임용 점수를 요청한 부분과 관련되어 이미 보고가 완료되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다. 이어 필수 이행 사항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미 이행되었음에도 정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절차를 규정에 근거하여 요약 정리한 후 후속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다.

이사장이 해당 안건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보고를 받고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①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② 이사회가 필요시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위 두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록을 정리하자고 제안하다.

이사장이 참여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의견 유무를 묻고, 이견 없으므로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제244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학칙·규정 상 위원회 현황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사항

이사장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무 처리'와 '보고 사항'의 순서 변경을 제안하다. 먼저, 안건 '제4호. 규정 제·개정 관련 「정관」 변경 요청 승인제청', '제3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제5호.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 승인제청'를 먼저 심의하고,

이어 안건 '제1호. 2025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제청', '제2호. 기채신청 승인제청',

심의·보고하고,

'제6호. 기타 안건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은 학교 배석자 이석 후 이사들만 남아 별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들에게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 없으므로 이자희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의안] 제4호. 규정 제·개정 관련 「정관」 변경 요청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4호. 규정 제·개정 관련 「정관」 변경 요청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김정웅 법인사무국 실장(이하 '실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실장이 금번 정관 개정안은 의안 '제3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의 '3. 직제규정 상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로, 「정관」 제82조 제6항 'RISE 사업추진단'이라는 명칭을 'RISE사업단'으로 변경하는 안임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들에게 'RISE사업단' 명칭 변경 외 다른 사유 없음을 재설명하고,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김병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4호. 규정 제·개정 관련 「정관」 변경 요청 승인제청 : 원안 승인**
- 「정관」 제82조 제6항 개정 : "⑥ 총장 직속기구로 교목실 …… 단, RISE사업단, ……, RISE사업단장, ……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으로 보한다."

[의안] 제3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3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장희선 기획경영본부장·융합소프트학과 교수(이하 '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본부장이 5개의 규정 제·개정 목록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학원 학칙의 학위명 변경에 대한 내용은 하정협 교수와 이태규 교수가 각각 추가 설명하겠다고 하다.

본부장이 2026학년도 입학정원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학과 신설 및 무전공 모집 확대에 따른 학사제도 개선, 학생활동의 자율성 강화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1.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의 제31조의2 제2항~제3항, 제54조 제1항~제3항, 제55조 제1항~제3항을 개정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어 대학원 구조개편(학과·전공 신설 및 정원조정)으로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환경융합공학학과(환경융합공학) 설치, AI융합대학원 석사과정 환경융합공학학과(환경융합공학) 폐지, 석사과정 AI가상자산학과(AI가상자산전공) 신설, 대학원 총정원 내 정원조정(상호조정, 자체조정) 실시를 위한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별표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2] 학위의 종류 개정과 교육부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관련,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 인원을 학칙에 명시하기 위한 동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하정협 교수 배석)

하정협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학과 교수(이하 '하정협 교수')가 환경융합공학과의 대학원 이전 배경으로 해당 학과는 지난 학기에 AI융합대학원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나, 급하게 개설되어 합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고, 석사과정이 2.5년으로 설정되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으로 소속 변경하고 박사 및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본부와 총장에게 건의, 이번 개설(안)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사장의 "단순히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으로 옮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질의와 김영미 이사의 "현재 관련 학과가 학부에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하정협 교수가 본교 학부에 ICT환경융합학과가 있다고 답하고, 특수대학원은 학위과정이 2.5년이고, 재학생이 대부분 직장인

중심으로 학생 선호도가 낮아, 최근 공과대학에서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연구 중심 교육 강화와 학생들의 실무 참여 확대를 통해 학문 발전과 연구 중심 대학의 기반을 다지고, 일반대학원으로 이전 시 석사 2년, 박사 3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이후 수요가 많으면 석·박사 통합과정과 학·석사 연계과정 개설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다.

(하정협 교수 이석)

(이태규 교수 배석)

이태규 ICT융합학부 스마트콘텐츠학과 교수(이하 '이태규 교수')가 AI융합대학원의 현황과 AI가상자산학과 신설 제안 배경을 설명으로, 2025년에 개원해 현재 석사 10명, 박사 5명의 재학생이 있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업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AI가상자산학과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산업화 된 가상자산 및 디지털화폐(CBDC)가 국가적으로 제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AI 기술과 접목한 신설 학과로 가상자산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AI가상자산학과 신설을 꾀하였음을 설명하고, AI 기술과 금융자산 제도화 흐름을 연계하여 학교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부언하다.

선권수 이사의 "신설 학과의 명칭이 AI와 가상자산을 결합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김우영 이사의 "학생 모집 전망,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태규 교수가 AI 기술이 가상자산 시스템 전반에 접목되어, 교과 과정이 AI융합학과와 상당 부분 공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I와 가상자산 분야는 부동산, 예술작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야로 아직 국내 시장은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다. 또한 AI융합대학원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의 IT 관련 학과들의 시설물과 기자재를 공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투자 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필요시 AI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다.

(이태규 교수 이석)

김우영 이사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제3조와 관련하여 그 사유를 꼭 표기해야 하는지를 묻자, 이석윤 기획경영부본 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 교원의 연구 실적,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연구 실적을 반드시 학칙에 명시하라고 교육부 지침에 있다고 답하다.

이어 본부장이 '3. 직제 규정 개정(안)'과 '4. 평택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5.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제·개정 사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다.

이사장이 본부장의 보고와 설명을 청취한 후 전체 이사 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김우영 이사가 질의한 사항을 추후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선권수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3호.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 원안 승인**

-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 「대학원 학칙」 개정, 「직제규정」 개정, 「평택대학교 RISE 사업운영 규정」 제정,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규정」 제정

○ **확인 사항**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유란에 표기된 내용을 꼭 표기해야 하는지 교육부 질의 후 확인하여 적의 조치 - 교육부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관련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 인원 학칙에 명시

(정회 15:30) 이사장이 정회를 선포하다.
(속개 15:40) 이사장이 속개를 선포하다.

[의안] 제5호.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5호.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10월 2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전체 13개 학과 15명의 신규 교원 수급 요청 중 11명에 대해 승인되었음을 설명하고, 승인제청 된 인원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전기·전자공학 1명, 자동차공학·기계공학 1명, 정보통신학과 1명, 지능형반도체학과 1명, 경영학과 1명, 국제무역행정학과 1명, 국제물류학과 1명, 국제지역학부 일본학전공 1명,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1명, 사회복지학 1명,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1명으로 총 11명이라 보고하다.

교무처장이 구체적인 심의 결과와 내용을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2026년 3월 1일 기준 전임교원은 총 118명으로 교원 확보율은 66.67%이며, 이는 대학기관평가 인증

기준인 64%를 상회 하나, 교원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 등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원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다.

이에 대해 이동현 총장(이하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확보율(66.67%)과 향후 대학 여건을 고려할 때, 너무 적은 인원을 충원하면 대학기관평가 인증 기준(64%)을 하회할 위험이 있고, 과도한 충원은 신설 분야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제청 인원 11명 중 최소 4~5명 내외 교원 충원하여, 본교의 현 교원확보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각 학과별 수급 요청 중 적어도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지능형반도체학과, 국제무역행정학과,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교원을 각 1명씩 충원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어 교무처장이 1차 채용공고에서 충원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번 승인될 계획 내에서 재승인 없이 추가 공고를 통해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총장·교무처장의 설명과 참석한 전체 이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분야 중 스마트모빌리티학과 1명, 지능형반도체학과 1명, 국제무역행정학과 1명,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1명 총 4명의 신규 전임교원 임용 절차의 진행"과 "금번 채용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1차 채용공고에서 충원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재승인 절차 없이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공고 및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김우영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5호.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계획 승인제청 : 일부 승인**

- 2026-1학기 신규 전임교원 채용 분야 중 스마트모빌리티학과 1명(2개 분야 중), 지능형반도체학과 1명, 국제무역행정학과 1명,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1명 총 4명의 신규 전임교원 임용 절차의 진행과 채용계획 승인
- 1차 채용공고에서 충원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재승인 절차 없이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공고 및 채용을 진행

[의안]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 실장, 안상우 감사·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실장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법인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를 종합하여 순차적으로 요약 보고하고, 법인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표기되었음을 보고하다.

□ **법인회계**

○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업무회계]

구분	2025회계연도		증감		비고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841,437,929	841,437,929	0	0.00%	-
지출예산	841,437,929	841,437,929	0	0.00%	-

[수익사업회계]

구분	2025회계연도		증감		비고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3,825,461,573	3,825,461,573	0	0.00%	-
지출예산	3,825,461,573	3,825,461,573	0	0.00%	-

이사장이 실장과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설명, 참석한 전체 이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인의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지훈 이사의 동의와 이대화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법인회계) : 원안 승인

[의안]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교비회계)
[의안] 제2호. 기채신청 승인제청

이사장이 의안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교비회계)'와 '제2호. 기채신청 승인제청',

사안의 성격상 단독으로 심의·의결하는 것 보다, 4건의 의안과 보고 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참석한 이사 전원이 동의·재청하다.

제1호.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교비회계)

이사장이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교비회계)'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본부장,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교비회계**

○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구분	2025회계연도		증감		비고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47,532,871,000	48,436,533,000	-903,662,000	-1.87%	-
지출예산	47,532,871,000	48,436,533,000	-903,662,000	-1.87%	-

본부장이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교비회계에 대하여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검토 결과와 교비회계 관련 주요 논의 및 요구 사항으로 1) 기채 발행 사유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이사회에 상세히 제출 요청, 2)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 구조 검토 권고, 3) 인건비 비중 산출 시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 기준으

로 산정해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요청, 4) 필요시 비정년트랙 제도 재도입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 5) 등록금 수입의 변동 위험성과 재학생 수를 실제 근거로 반영해 자료를 작성, 6) 인건비 부분은 순수 등록금 수입 대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이전에 제공받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자, 본부장이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보완 설명하다. 더하여 예산 작성 시 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기재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번 보고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자, 본부장이 제공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다.

재정분과위원장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상술한 내용('1)'~'6)')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한 점, 추가경정예산(안)이 15억 원의 기채 승인을 전제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025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교비회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표기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안] 제2호. 기채신청 승인제청

이사장이 의안 '제2호. 기채신청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부본부장이 이사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약 15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했다고 보고하고, 계획하고 있는 기채는 단기성 차입으로, 재정 정상화를 전제로 2027~2028년까지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다. 이어 등록금 수입 감소와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다. 2018년 대비 2024년 등록금 수입이 약 88억 원 감소했으며, 정원 20% 감축과 외국인 유학생 수입 급감(50억 원 → 15억 원 수준)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다. 2025년도에는 재정기부금 14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약 33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다. 부본부장이 자구 노력으로 8억 원의 지출 절감, 첨단학과 증원(2억 1,700만 원), 계약학과 운영(1억 2,900만 원), 등록금 4.9% 인상(10억 5,400만 원), 임대수익(1억 원) 등 약 18억 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했다고 보고하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수입은 미확정이므로 보수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다. 향후 2026~2028년 재정 전망을 제시하며, 첨단학과 안정화와 등록금 인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해 점진적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다. 2028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입을 약 5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기채 신청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다. 기채 신청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단기 조치이며, 대학이 불건전 대학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채 신청과 병행하여 추진 중인 자구 노력을 설명하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상향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강사료를 축소하고, 재학생 충원율 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다. 해당 사항은 부총장과 총장이 직접 관리 중이라고 부언하다. 중기 계획(2026~2028년)으로는 등록금 인상, 자연감소 인력에 따른 교원·직원 최소 충원, 초과근무 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다. 또한 등록금 수입 확대, 교육비 지원 사업, 수익사업 및 기부금 확대, 신규 국책사업(소프트웨어진흥대학사업 등) 참여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다. 이어 기채 추진 현황을 추가로 설명하다. 15억 원 규모의 단기성 기채를 위해 여러 은행과 협의했으며, 농협은 내부 방침상 불가하고, 국민은행은 변동금리 4.9%, 하나은행은 약 4.4%, 신한은행은 6개월 변동금리 4.24%를 제시했다고 설명하며, 이사회 승인 후 금리가 가장 낮은 신한은행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다.

이사장이 동일 안건에 대해 장시간 참석한 전체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는 하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그 사이 각 이사와 감사가 해당 안건과 보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10월 27일(월) 18:30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박승현 이사의 동의와 전체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9.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마치고 10월 27일(월) 18:30 속개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지훈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정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20시 00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5. 10. 23.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이 사 김 병 환

이 사 김 영 미

이 사 김 우 영

이 사 김 지 훈

이 사 박 승 현

이 사 선 권 수

이 사 이 대 화

이 사 이 자 희

감 사 정 재 흠

감 사 안 상 우